

서정진 회장, 글로벌 경영 ‘구슬땀’ 셀트리온 역대최대 실적 이어간다

서정진 회장, 여름휴가 전면 반납
유럽 등 해외 주요법인 현장 점검
글로벌 직접판매 체계 고도화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고성장 궤도에 오른 셀트리온그룹이 하반기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 최고경영진 차원의 초강수를 둔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이 여름 휴가를 전면 반납하고 폭염을 뚫고 글로벌 영업 최전선으로 직접 뛰어든다.

5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서정진 회장은 오는 10일 프랑스 파리로 출국해 8월 한 달간 유럽 전역과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해외 법인을 순회하는 대대적인 글로벌 현장 점검에 나선다. 단순한 현지 법인 격려 차원을 넘어 하반기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전략적 행보다.

서 회장은 권역별 시장 환경과 제품별 판매 현황, 입찰 및 공급 일정, 출시 국가 확대 계획 등을 직접 챙기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즉각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현장 경영의 핵심은 셀트리온이 추구하는 직접판매 체제를 기존 병원에서 약국으로 확대하는 데 있다. 최근 인수한 프랑스 헬스케어 기업 ‘지프레’와 스위스 유통 제약사 ‘아이콘’을 해외 거점으로 삼아 현지 영업망을 공고히 한다. 인수 법인과와의 합병 시너지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

유럽 의약품 시장은 병원 입찰 채널과 일반 약국 채널로 크게 나뉜다. 셀트리온이 약국 직판망까지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경우, 현지 공급 경쟁력과 마진율을 동시에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서 회장 특유의 ‘현장 밀착형 리더십’이 그룹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된 폭염으로 열악해진 현장 근무 환경 속에서 서 회장은 현지 영업 인력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고경영진의 결단으로 바로 연결해 조직에 긴장감과 동기를 부여하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올해 하반기 유럽 주요 국가에서 실적 성장세 유지에 박차를 가한다. 유럽 주요국의 대규모 공공 입찰 물량이 본격 반영되는 데다, 연말을 앞두고 글로벌 의료기관들의 재고 확충 수요가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실적 성과는 앞서 올해 상반기 이미 입증

된 바 있다. 셀트리온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2조5387억원, 영업이익 773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0.8%, 97.4% 급증한 역대 최대 반기 실적을 올렸다.

기존 제품군의 안정적인 판매 호조에 글로벌 직판 체계 고도화가 더해지면서 후속 파이프라인의 해당 시장 선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램시마SC(파하주사제형)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신규 제품군이 전체 매출의 65%를 차지하며 신성장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램시마SC의 유럽 주요 5개 국가 시장 점유율은 올해 1분기 기준, 32% 수준이다.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에서 매분기 최고 점유율을 경신하고 있다. 유럽 전역에서 고른 처방 확대가 이뤄지면서 급격한 우상향 곡선을 그렸다.

자가면역질환 뿐 아니라 항암 부문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1분기 기준 유럽에서 트룩시마는 28~30% 수준의 안정적인 점유율로 유지했다. 같은 기간 허주마 역시 31%의 점유율로 시장에 진입해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서 회장이 휴가를 반납하고 해외 현장을 직접 누비며 하반기 매출 강화를 진두지휘한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약국 직판망 확장 등 국가별 핵심 과제를 차질 없이 완수해 상반기의 가파른 성장세를 하반기에도 계속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가 상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시스

홈플러스, 2000억 확보… 13일 정식 영업

긴급 운영자금 대출 최종 허가

파산 위기에 몰렸던 홈플러스가 긴급 운영자금(DIP) 2000억원을 확보하면서 영업 정상화에 착수한다.

5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서울화생법원이 긴급 운영자금 대출을 최종 허가해 2000억원 규모의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일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000억원을 자체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메리츠금융그룹과 2000억원 규

모의 DIP 대출 약정을 체결한 뒤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및 승인 기한을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했다.

홈플러스는 자금 집행 이후 납품업체와 배송업체 협의를 마무리한 뒤 임시 휴업 중인 67개 점포의营业을 순차적으로 재개할 계획이다.

오는 7일부터 시범 운영과 시설 점검을 진행하고, 13일부터 정식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metro

고용노동부, 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고시

올해 대비 3.7% ↑… 모든 사업장 적용

고용노동부가 5일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1만700원이라며 고시했다. 이는 올해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 대비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시대 현실과 동떨어진 관행적 결정이라며, 서울 서초구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3면〉

2027년도 최저임금은 월급으로 환산 시 223만6300원(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로)이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업종별 차등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된다.

앞서 지난달 14일 사용자와 근로자,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들은 제14차 전원회의까지 가는 격론을 벌였고, 올해도 어김없이 합의안 도출이 아닌

막판 중재·표결을 통해 결론을 냈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열흘간 이의 제기를 받았다.

이 기간 민주노총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등의 도급노동자에도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반면, 소상공인연합회는 과도한 수준의 인상 탓에 소상공인 생계를 위협하고 도리어 일자리 위축을 앞당길 수 있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다.

이에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 안내와 사업장 지도, 감독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쿠광, 과징금 직격탄… 2분기 8350억 영업손실

매출 88.5억달러… 전년대비 10% ↑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수익성 ‘적신호’

쿠광의 모회사 쿠광Inc가 올해 2분기 매출 13조원을 돌파하며 외형 성장을 이어나갔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6000억원대 과징금이 실적에 반영되면서 상장 이후 최대 규모의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세무조사 추징금과 물류센터 화재 손실 등 추가 비용 부담도 이어지면서 하반기 실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5일(한국시간) 쿠광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제출한 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쿠광Inc의 올해 2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88억5600만달러(약 13조3007억원)를 기록했다. 프로덕트 커머스 활성 고객 수는 2470만명으로 늘었고, 성장사업 부문 매출도 24% 증가했다.

반면 수익성은 악화됐다. 2분기 영업손실은 5억5600만달러(약 8350억원), 당기순손실은 5억7000만달러(약 856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모두 적자 전환했다. 영업손실은 지난 1분기(3545억원)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발생했으며, 2021년 뉴욕증시 상장 이후 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영업손실은 1조18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년간 기록한 누적 영업이익 1조2813

억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적자의 주요 원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반영이다. 개인정보 보호는 전직 직원의 해킹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회원 332만 2472명, 비회원 433만 8368명) 및 무단 타사 활동 기록 수집 등에 대해 과징금 6246억 8100만 원과 과태료 1680만 원을 부과했다. 자회사 쿠광플랫폼서비스(CFS)에도 과징금 2억 4800만 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중 약 4억 1000만 달러(약 6150억 원)가 2분기 판매관리비에 일시 반영됐다.

쿠광Inc 측은 과징금을 제외한 2분기 실질 영업손실은 1억 4600만 달러(약 2192억 원), 당기순손실은 1억 6000만 달러(약 2403억 원)라고 밝혔다.

컨퍼런스콜에서 김범석 쿠광Inc 의장은 “사고 기간 이탈해 아직 복구하지 않은 고객을 제외한 전체 고객 지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해 사건 발생 전 수준에 근접했다”며 “비용을 삭감할 수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옳은 결정은 최우선 가치인 고객 경험을 뒷받침하도록 물류 처리 능력을 삭감 없이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거랍 아난드 CFO는 “4억 1000만 달러 과징금은 사법 판단을 거쳐야 하며 법원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며 “3분기 연결 매출 성장률은 고정환율 기준 8~9% 수준을 예상하며, 2027년 중반까지

프로덕트 커머스 부문 조정 에비타 마진 이 사고 이전 수준에 근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장의 우려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개인정보 유출 건에 따른 후폭풍이 법적·재정적 리스크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자 5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을 결정했으며, 전체 피해 규모를 감안하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 부담액이 조 단위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상가상으로 세무 및 기타 법적·물리적 악재가 3분기 이후 실적까지 위협하고 있다. 국세청은 쿠광의 한국 자회사간 이 전가격 거래 등을 조사한 후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약 3000억 원(2억 800만 달러)의 추가 세액 납부를 통지했다.

쿠광Inc는 이에 불복해 사법 소송을 포함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으나, 행정 절차상 선납 후 소송이 진행되는 만큼 단기 자금 흐름에는 부담이다. 지난달 발생한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에 따른 자산 손실 추산액 2억 4600만 달러(약 3500억 원) 역시 3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쿠광이츠 최대우요구 혐의 및 끼워팔기 관련 과징금 부과 절차까지 감안하면, 하반기에도 수천억 원대의 추가 손실 리스크가 대기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metro